



2020 07 vol.329

Better | Life | **Value** | Create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



Jeonju Plant 2

전주2공장 인근의 전주한옥마을입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은 비우고,
정겨운 기억은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社歌

무겁지 않게(즐거운 듯이)

양 명 문 작사
최 창 권 작곡

새 역 사 누 비 먼 서 앞 - 장 서 전 진 하 네
은 세 계 주 름 잡 아 바 다 멀 리 약 진 하 네

줄 기 찬 기 세 - 로 큰 포 부 가 습 에 안 고
새 로 운 기 술 - 로 큰 공 로 세 워 나 가 며

슬 기 와 단 결 로 창 의 능 력 발 휘 하 여
성 실 로 뭉 치 고 협 동 으 로 발 전 하 여

복 지 낙 원 건 설 하 세 두 팔 에 새 힘 이 솟 네
산 업 건 설 사 명 위 해 몸 바 쳐 땀 을 흘 리 세

(후렴) 우 리 는 영 예 로 운 산 업 의 역 군 이 다

건 설 의 깃 발 - 높 이 날 리 자 아 -

아 K C C 우 리 의 K C C

Contents

Theme



04 Theme Story

06 4인4색 인터뷰

고정관념을 비움, 미래가치를 채움
비움과 채움으로 혁신을 만드는 KCC 4人

Company



Culture



10 Close Up 건축도로 Part 1. 정의/역사

12 Part 2. 사업장소개 도로와 소재의 첨단 전초기지 전주2공장

14 Part 3. 제품 및 공정 건축물을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KCC 건축도로

18 Part 4. 인터뷰 건축도로 생산 공정은 내가 책임진다!! 전주2공장 건축_자동차도로생산부 최형로 반장

20 KCC건설 현장탐방 언택트 시대의 물류 허브를 짓다 안성원곡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24 All that KAC "최적의 물류는 내 손안에!" KAC 물류과 신종우 주임

26 현장매거진 유리 생산 맛집이 되기 위한 솔루션! KCC글라스 여주공장 백마분임조

30 영업소 이야기 위기를 영업 기회로! 서울영업소

34 KCC ISSUE 마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대! KCC 정몽진 회장 <비즈니스 러시아어> 교재 편찬

36 Global KCC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다 터키법인 영업1부

38 건강 백서 역대급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여름 건강 백서'

40 슬기로운 DIY 생활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OUT! 깔끔한 욕실 만드는 '셀프 욕실 실란트'

42 트렌드 백과 집에서 즐기는 랜선 휴가의 모든 것

44 사이언스 고요한 쾌적함을 만드는 흙음 그리고 차음

46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이드북 간결하고 명확한 이슈 전달을 위한 공문 & 공지 영어 표현

48 주기율표 모든 물질의 필수 원소_아연

50 KCC NEWS

54 우체통

55 함께하는 걸음 관계를 풀어주는 대화법 "쿠션 언어로 부드럽게 말해요!"

Value + 비움과 채움

7월의 테마는 '비움과 채움'입니다.

2020년 7월호(통권 329호)

주식회사 KCC 월간 사보

발행일 2020년 7월 1일

신고번호 서초 라11683호

신고일자 2016년 8월 17일

발행인 정몽익

편집인 정몽익

발행처 (주)KCC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기획 · 편집 · 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전형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 에릭 시노웨이 & 메릴 미도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흔히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한다. 텅 밀까지 차오른 답답한 감정을
덜어내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 비워낸 후에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나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비움과 채움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이면서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우리는 비움과 채움의 반복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혹시 마음 속에 담아둔 것을 덜어내지 못해
힘들지는 않은가? 아니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것이든
괜찮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 비움과 채움을 통해 스스로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고정관념을 **비움**, 미래가치를 **채움**

비움과 채움으로 혁신을 만드는 KCC 4人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앞서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낡은 형식을 비워내고 창의와 혁신을 채우며 KCC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무게는 비우고 기능은 채워 넣은 마이톤

내화연구팀
강혜진 사원



“조바심과 부담감은 비우고
집중력과 전문성은 채워서
조직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마이톤은 마네탄을 주재료로 만들어 불에 잘 타지 않는 불 연, 실내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 열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능을 갖춘 천장재입니다. 기능은 짝 ‘채워’ 넣으면서 무게는 확 ‘비워’ 취급하기 쉽고, 대형 판형으로 제조되어 시공도 간단하죠. 바닥이나 벽면에 비해 시공이 어려운 천장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시공성이 좋다는 장점이 더욱 의미가 커요. 유해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 물질에 민감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는 내화연구팀에서 마이톤을 담당하며 영업 및 품질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물성 개량과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마이톤의 장점을 강화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톤 관련 업무를 한 것은 김천공장 기술과로 입사한 2017년부터입니다. 올해 내화연구팀으로 옮기면서 마이톤 제품만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소로 옮기면서 한 가지 제품만 담당하게 되니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로 짝 채워져 있던 공장 업무보다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쌓여가는 좌절감과 어서 성과를 만들고 싶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간 실험 결과와 복잡한 생각들을 마음에서 비워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다시 시도하는 데 필요한 의욕과 집중력으로 채울 수 있니까요. 또 한 가지 채우고 싶은 것은 높은 전문성입니다. 한 가지 제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만큼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해가 되는 무게와 유해성분은 비워내고 주거공간의 안전과 안정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알차게 채운 마이톤처럼, 저도 조바심과 부담감은 비우고 집중력과 전문성은 채워서 조직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형식은 비우고 내용은 채우는 워크 다이어트

생산운영개선팀
김승섭 과장

생산운영개선팀은 생산정보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지향점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절차 같은 낭비요소를 ‘비워’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채워’서 업무 속도와 정확성,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죠. 7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QR코드 연계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됐습니다. 업무 단계가 비워지는 만큼 업무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최근 KCC의 경영목표 중 하나인 ‘워크 다이어트’의 취지와도 닿아 있죠.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정보만 담을 수 있다면, QR코드는 7,000자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URL로 홈페이지와 연결해 사용자가 주도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업사원을 거칠 필요 없이 고객이 직접 인증서나 납세 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부터 LOT별 시험 성적서와 제품별 물성 값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는 회사는 많지만, KCC만큼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본격적인 QR코드 연계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업무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KCC가 적어도 7년 전부터 현재의 QR코드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생성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와 현업 부서의 필요를 파악해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이제는 업무 표준화를 통해 정보제공 업무를 전산 기반으로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어요. 이 시스템을 몇 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본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업무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QR코드 연계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은 KCC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를 비워낸 자리는 좀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로 채워지겠죠. 이번에 오픈하는 QR코드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분체 제품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유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스 옹호를 실무 담당자에게 넘기고, 비워낸 자리를 다시 새로운 기획과 시도로 채워갈 것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를 비워낸
자리는 좀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로
채워질 것입니다.”



“원칙과 규칙을 조금 비워낸 자리를 시장 트렌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채워서 회사와 현장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원칙과 규칙보다는 현장중심 지원으로 영업 자율성을 높인다

사업지원총괄

영업지원팀 정대웅 대리, 객단비 대리, 채권관리팀 이균수 대리

사업지원총괄 부서의 업무에는 영업의 효율을 높이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 업무뿐 아니라 원칙과 규칙 설정을 통해 영업활동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리 역시 영업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현장의 방식과 충돌하는 면도 있죠. 이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영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KCC는 직접적인 통제를 ‘비우’는 대신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와 시스템을 ‘채워’서 영업 자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가와 적자 그리고 채권 관리 업무에서 최근 영업 자율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원칙들이 만들어졌죠. 먼저 단가 업무부터 말씀드리면, 판매단가 운영 시 일선 영업소장님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판매단가는 이익과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적의 이익과 시장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판매단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영업소의 소장님, 팀장께서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판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판매단가와 물량 변동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자 관리 업무에도 비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자거래처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부 차원의 매출통제 거래처 기준을 한층 완화했죠. 예를들어, 당해년

도에 신규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거래처의 경우 이익변동 현황, 매출성장세 등을 기반으로 거래통제 유무를 영업 자체 판단 및 관리하도록 하여 영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동시에, 적자거래처 발생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월별 적자 흐름 등 모니터링 자료를 더 세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 관리의 제품을 판매 후 수금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안정적 회수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판매한 대금에 대해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영업이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대신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및 거래처의 신용도나 재무상황 등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더욱 알차게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영업 자율성 강화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면서 영업 현장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칙과 규칙 설정을 통해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도 분명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업 자율성도 존중되어야겠죠. 앞으로 원칙과 규칙을 조금 비워낸 자리를 시장 트렌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채워서 회사와 현장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최적의 공정을 찾아라

공정개발팀

박정삼 차장

공정개발 업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맞춰 생산설비를 설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공정을 개선하는 일이지요. 공정개선은 기본적으로 생산 현장의 낭비 요소를 찾아 ‘비워’내고 효율을 ‘채워’ 넣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결 혹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과제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업무와는 다른 어려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KCC의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가지를 검토하면 2~3개 정도만 적용 가능한 개선안이 되니까요. 개선 과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동안은 어느 공장에서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과 수고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바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냈을 때 느끼는 보람은 정말 짜릿하죠. 기억나는 사례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성공장의 세척용제 정제설비 용량 부족에 따른 투자비 검토건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존 설비로는 향후 발생할 세척용제를 처리할 수 없어 추가설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토 후 운전 조건 변경만으로 정제설비 용량이 약 2배 정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안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건으로 여천공장 석고보드 공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 건입니다. KCC 석고보드공장 두 곳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죽공장 대비 여천공장 소성 라인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고, 건조와 이송에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최적의 운전 및 설비 조건을 확인하여 투자비 대비 상당한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막상 찾아낸 개선안을 보면 누구나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개선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조건 변경에 따른 전체 시스템 영향도 분석이나 설비 변경에 따른 엔지니어링은 공장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정개선에 대한 그런 전문적 업무수행을 담당할 팀이 따로 필요한 이유죠. ENG에서 공정개발 팀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일수록 커지는 늘 하던 방식에 대한 애착과 고집을 비워내고, 새로운 발상은 채워 넣어야 하죠. 그래서 힘들지만, 또 앞으로도 늘 자신을 경계하면서 고정관념을 비워내고, 생산 효율은 물론 생산 현장의 만족도까지 꼭 채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KCC 공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비워내고, 생산 효율은 물론 생산 현장의 만족도까지 꼭 채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KCC 공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Decorative Coatings

건축도료

건축물의 수명과 아름다움은 건축도료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조물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방수, 차열 등 다양한 기능성을 더하며 주거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축도료에 대해 알아본다.

Part 1. 정의/역사



건축도료



Decorative Coatings



建筑涂料



Mimari boya



वास, तुशलि, प पेन्ट



Sơn kiến trúc



Architekturfarbe

명사

(1) 건축물의 표면에 덮어씌워 외관을 보호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소재

나무 수액에서 시작된 건축도료의 역사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처음 도료를 사용한 시기를 약 1만 5천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동물 그림,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등이 그 증거다. 고대에 그려진 그림은 나무 수액에 짐승의 피, 과즙, 우유와 여러 색상의 토양을 혼합해 그려졌으며, 약 1만년 전 이집트인들은 석회석과 실리카 등을 혼합해 청색 안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도료의 고유기능인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피도체를 방지하는 역할보다는 종교적 혹은 기록의 의미가 더 크다. 앞서 언급한 도료의 개념과 유사한 최초의 도료는 18세기 유성도료가 개발된 후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옻나무 수액을 활용한 옻칠을 최초의 도료라고 할 수 있다. 옻나무 수액 중 수지상 물질을 모아 처리한 것으로 사찰 건축물의 도료는 물론 나무로 만든 식기나 가구에도 사용됐다. 옻칠을 한 나무가 다 썩은 후에도 도료인 옻칠은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 지금까지도 천연도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건축도료는 사용되는 용제에 따라 크게 유성도료와 수성도료로 구분되며, 기능성이 강조된 방수재 도료, 바닥재 도료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7년,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적합 확인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경제적이고 취급이 간편하며 친환경적인 수성도료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도료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및 개발 설비 투자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 자동화 생산설비로 건축도료 시장을 선도하다

KCC는 선박도료를 시작으로 도료 사업의 저변을 넓히며 건축도료 생산에도 박차를 가했다. 처음 건축도료 생산을 시작한 건 울산공장이었는데, 1995년 7월에 완공된 전주2공장으로 건축도료 사업이 이동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전주2공장은 당시 도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세계에서 손에 꼽는 컴퓨터 제어식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도료의 기능성을 좌우하는 건 바로 수지다. KCC는 건축도료를 포함한 도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크릴, 에멀전, 알키드, 우레탄 수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KCC 건축도료 제품은 친환경 건축도료의 선두주자인 '숲으로' 시리즈와 건물의 목재 및 철재에 주로 도장하는 유성도료 '센스멜', 옥상 방수재로 사용하는 '스포탄', 보행로 및 주차장의 바닥재로 활용하는 '유니폭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DIY도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공이 편리하면서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외관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CC는 신축 아파트의 외벽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구축 아파트 재도장을 위한 색채 디자인을 소개하는 'RE-ACT(Repainting Apartment Color Trend)'를 발간했다. 양질의 건축도료를 개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성 회복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도 KCC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건축도료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료와 소재의 첨단 전초기지

전주2공장

전주2공장은 건축용 및 자동차용 도료와 반도체 패키지 핵심소재인 EMC까지 생산하는 첨단 전초기지이다. 자동화 실현 도료공장으로 출범해 고도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친환경 건축용 도료 '숲으로' 시리즈를 출시해 녹색사업장으로서의 입지도 다진 전주2공장은 친환경 도료 기업 KCC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최초 도료 생산 자동화 실현

1995년 준공된 전주2공장은 건축도료, 자동차도료, 분체도료 등 다양한 도료 생산은 물론,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소재인 EMC(Epoxy Molding Compound)까지 생산하며 도료와 소재의 첨단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주2공장은 도료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컴퓨터 제어식의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자동원료투입시스템, 최첨단 자동화 조색설비, 자동계량시스템 등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최고의 도료 제조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살펴보면, 건축도료는 건축물의 내외부용의 다양한 기능이 부여된 수성도료뿐만 아니

라 방수, 미끄럼방지, 도전성, 탄성, 내충격성, 내약품성, 방진 등의 기능이 부여된 바닥용 에폭시도료와 우레탄도료까지 그 범주를 넓혀 나갔다. 분체도료는 일반 제품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파이프 내외부용 기능성 에폭시 분체도료를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메모리용 EMC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메모리용 고신뢰성 EMC 개발에 중요한 기반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던 전주2공장은 2013년 국내외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면하지만, 오히려 모두가 협업체 경쟁력을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공장 설립 이래 월간 1,000만 리터 초과 생산·출고 달성이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녹색기업

2003년 11월 KCC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전주2공장은 2012년에는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녹색기업' 인증을 취득, 이를 9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표지인증 51종, 친환경건축자재인증(Healthy Building Material) 20종, 아토피인증 1종 등 친환경인증을 다수 보유하며 녹색기업의 선도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주2공장은 친환경 공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주2공장은 운영·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 자체로도 친환경성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건축도료의 경우 VOCs 저감 제품 및 MOCA(Methylene bis Ortho-Chloro Aniline) 미함유 방수재·바닥재 페인트를 출시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스프레이 도장 금지 정책에 대응한 제품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해 살생물질 및 공기정화, 냄새저감 등 친보건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국능률협회 주관 친환경페인트 부문에서 수성도료 '숲으로'가 브랜드와 위 1위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도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축도료뿐만 아니라 전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친환경 도료인 분체도료는 원유나 가스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친환경자동차의 새로운 소재 및 부품에 요구되는 강화된 물성기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는 전력효율과 열방출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파워모듈패키지'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KCC는 200℃가 넘는 조건에서도 패키지 깨짐과 휨 현상이 없고 절연특성 또한 우수한 파워모듈패키지용 EMC 개발에 성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향한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

전주2공장은 품질혁신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성 건축도료는 KS-QEI(한국품질만족지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에 걸쳐서 1위를 수상하였다. 또한 유성 건축도료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KCC 건축도료의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건축도료는 '무조색·무보정' 공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산성 향상을 진행중이며, 제품별 초기 색상값, 추가 투입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배합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무조색·무보정'은 기존의 틀을 깨는 개념의 적극적인 시도로 '조색시간 단축', '물성 수정시간 단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분체도료는 해외공장에 기술 및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여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구축하고 있다. EMC 또한 연간 생산성 저하 유발인자를 제거하고 타정공정 시간당 토출량 증대를 완료하는 등 세계 최고의 EMC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개발하고 있다. 전주2공장은 이외에도 SR(Solder Resister)*, LEB(Liquid Epoxy Bond), UV몰딩재 등 첨단 복합소재의 개발로 글로벌 복합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직원이 단합하며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규투자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주2공장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앞장서 나가고 있다.



건축도료



분체도료



EMC

*PCB(Printed Circuit Board) 기판의 표면에 절연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재료

건축물을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KCC 건축도료

수성도료·유성도료·바닥재 도료·방수재 도료

건축도료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다채로운 색상으로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KCC 건축도료는 현대 건축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에 맞춰 개발된 다채로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수성도료, 유성도료, 바닥재 도료, 방수재 도료 등 용도별 건축도료 제품에 대해 알아본다.



수성도료

수성도료는 물을 사용하며, 유기용제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유해성을 낮춤과 동시에 환경 보호에 유리한 친환경 페인트이다. 이러한 수성도료는 건축물의 내외벽 도장, 기존의 유성 구도막의 보수, 비철 금속류를 포함한 철재면 도장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소재의 보호와 함께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게 한다. 전주2공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격에 맞는 다양한 수성도료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KS규격 제품인 '숲으로KS1급 내외부' 및 '숲으로에이스 내외부' 제품으로 아파트, 주택 등의 콘크리트에 적용된다. 이 제품은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제품으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및 에틸렌글리콜을 없애 친보건성까지 확보된 주력 제품이다.

이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탄생된 DIY용 프리미엄 브랜드 '숲으로홈엔' 제품 시리즈가 있다. 다양한 용도와 기능으로 출시된 숲으로홈엔 제품은 DIY 시장의 확



대에 맞춰 누구나 쉽게 도장 가능하며, 친환경성을 대표하는 HB마크 최우수 등급, 환경마크 보유 및 이지클리닝, 방균·항균 등의 고기능성 구현, 다양한 소지에 적용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또한 더욱 높아지는 친환경 도료 기준에 대응해 조용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HB 최우수 등급의 광택 제품들을 개발 출시 및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해 가고 있다.

올해 출시된 '숲으로 올인원' 제품은 기존 수성 도료의 한계를 뛰어 넘어 비철금속 및 철재면에 도장이 가능하며, 유해 살생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안정성까지 확보한 고기능성 프리미엄 시장의 선도 제품으로 더 주목 받고 있다.



1. 도료의 구성성분

수지:



도료의 기본 골격으로 도료의 특성과 성능을 좌우한다.
Ex) 아크릴 수지, 우레탄 수지, 에폭시 수지 등

안료:



물·용제 등에 용해되지 않는 색분말 입자로서 도료 내에 분산되어 있다.
Ex) 색상 및 은폐력을 부여하는 착색 안료, 녹 발생을 방지하는 방청 안료, 도막 형성과 도막 분해를 방지하는 체질 안료 등

첨가제:



도료의 특별한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약품이다.
Ex) 분산제, 침전방지제, 가소제, 소포제 등

용제:



도료의 수지를 용해하는 화학물질. 도장 후에는 증발해 도막에 잔존하지 않으며, 수용성 도료는 물이 용제 역할을 한다.
Ex) 단독으로 용질을 희석하는 진용제, 진용제와 병용 가능한 조용제, 점도를 조정하는 희석제 등

유성도료

유성도료는 수지에 따라 알키드 도료, 아크릴 도료, 락카 도료 등으로 구분되며, 건조가 빠르고 내수성, 내후성, 광택 등이 우수하다.

전주2공장 유성도료의 대표 브랜드는 '센스멜'이며, 대표 제품은 '센스멜골드'이다. 이 제품은 철재 및 목재의 마감도료 용도로 사용되며 물리 작업성, 살오름성, 은폐력이 우수하다.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VOCs 기준을 만족하고, TVOC 방출량이 적으며,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실내마크를 보 유해 실내에도 도장할 수 있다.

2019년에 출시된 '센스탄&센스탄속건' 제품은 아크릴 우레탄 2액형 도료로서 은폐, 광택, 건조속도, 내후성 등이 우수하다. 특히 다양한 소재에 부착이 잘 되어 철재뿐만 아니라 목재, 콘크리트, PCM(Pre-Coated Metal) 강판, 타일, 비철금속 등의 다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성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성 및 수용성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절기의 낮은 온도조건과 가혹한 외부 환경 조건에서는 아직 유성도료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금속 이슈로 인하여 광명단(Pb3O4)이 미함유된 방청하도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최근 기존 제품보다 방청성이 더욱 개선된 중금속 미함유 방청하도 센스멜방청하도 ㉔ 제품을 개발하여 여러 건축 및 철골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바닥재 도료

주차장, 공장 등의 바닥에 주로 도장되는 바닥재 도료는 콘크리트의 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진기능이나 무거운 물체에 의한 파손을 막아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설사의 브랜드에 맞춘 색상을 적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미관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높은 압축강도를 보유한 건축용 에폭시바닥재 도료의 대표 브랜드는 '유니폭시'이며, 특히 경도가 높고 마모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도료에 엠보(Embo) 무늬를 형성하여 자동차 타이어와 도료 소재의 접촉 면적을 좁혀 소음을 줄이는 기능도 발휘한다.

현재 VOCs 규제로 인해 에폭시 바닥재 도료도 무용제화 혹은 수용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전주2공장에서는 VOCs를 배제한 친환경 수용성 에폭시 제품을 2016년에 출시하였다. 이후 다양한 수용성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 모든 유성 에폭시 제품에 대해 수용화 전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KCC 수용성 에폭시의 경우 삼성전자의 오염제어테스트를 통과해 친환경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내마모성과 강도를 대폭 향상시킨 고강도 에폭시바닥재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수재 도료

방수재 도료는 피도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분이나 습기가 침입,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방수재 도료는 고분자물질의 방수시트나 도포방수재, 아스팔트 방수, 모르타르 방수 등 소재 표면의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전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수재 도료의 대표 브랜드는 '스포탄'으로 우레탄방수재와 우레아방수재가 있다. 우레탄방수재는 신율과 도막강도가 뛰어나 소재의 크랙과 균열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며 소지와외의 접착력이 좋아 장기간 방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내구성능 및 작업성 향상,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해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미함유 제품군을 출시하였다. 최근에는 유독물질 미함유 제품군의 출시와 환경표지 인증 및 특허출원을 통해 환경 및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우레아방수재는 별도의 도장기기를 사용하며, 1분 이내 경화되는 초속경화 타입으로서 저온 및 고습에서도 도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특징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및 빠른 보수 도장을 할 수 있는 고기능성 도료이다. 유해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및 유독물질 미함유 제품이며 환경표지인증 및 다수의 특허출원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차열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차열도료는 태양의 복사열을 반사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열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전주2공장에서는 차열도료-스포탄에너지와 특허공법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차별화된 성능 확보를 위한 영업현장과 기술연구 간의 끊임없는 정보교류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차열도료는 태양의 복사열을 반사해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2. 도료 제조 공정(1탄)

코-그라인딩 (CO-Grinding) 방식

- 1) 배합, 분산, 마감, 조정, 여과 및 포장 공정으로 제조한다.
- 2) 특징: 공정이 단순하고 여러 안료를 한 번에 분산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재고 관리에도 용이하다.



도료배합표 작성:

도료의 물성을 고려한 배합표를 작성한다.



선(先)교반 및 교반:

안료의 큰 입자를 수지와 혼합시켜 페이스트(Phaste)상으로 만든다.



분산:

안료를 분산하여 입자 주위를 전색제로서 감싸 안료 입자간의 재응집을 방지한다.



마감:

최종적으로 수지, 안료, 용제, 첨가제를 넣어 총량이 되도록 한다.



조색:

실제 도료 사용자가 요구하는 컬러로(표준건본판) 조색한다.



포장:

사용 용도에 맞게 포장한다.

건축도로 생산 공정은 내가 책임진다!!

전주2공장 건축_자동차도로생산부 최형로 반장



도로 생산공장의 컨트롤룸은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며 티끌만큼의 오류도 없도록 제어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전주2공장 건축_자동차도로생산부의 컨트롤타워는 27년간 컨트롤룸을 지켜온 최형로 반장이다. 전략과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도로 생산라인의 통합작전사령관 역할을 해온 최형로 반장을 만나본다.

컨트롤룸의 베테랑, 현장의 달인

“그 탱크는 원료 투입했으니까 배합하면 돼!”

작은 볼 몇 개가 깜박이는 도로탱크 위치도와 몇 대의 모니터로 채워진 전주2공장 건축·자동차도로 생산라인의 컨트롤룸 한 쪽 벽면. 몇 층의 몇 번 탱크가 작업 중인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던 최형로 반장의 무전기는 연신 현장에 지시를 전달한다. 그는 몇 차례 지시 끝에 급기야 현장으로 출동한다.

“도로 생산 공정은 ‘원료투입-분산-마감-이송-조색-검사-포장’ 단계로 진행되는데 조색과 검사만 빼고 자동 진행되는 전 공정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현장을 찾아 다시 한번 점검하지만, 전 공정을 제어해야 하기에 책임감도 크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죠.”

업무 특성상 컨트롤룸 근무자들은 생산 공정은 물론 설비지식도 갖추어야 하며, 노하우를 쌓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정을 알아야 하는 만큼 최 반장은 27년의 근무기간 중 5년 여 동안 각 공정을 경험했다. 줄곧 컨트롤룸에 근무하면서도 1층부터 4층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오르락내리락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볼트 하나만 느슨해져 있어도 귀신같이 잡아낸다. 특히 직접 보고 확인해야 안심되기 때문에 수시 현장 점검은 필수다. 컨트롤룸 베테랑의 저력은 바로 현장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컨트롤룸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작업지시서를 받으면 계획을 세우고 작전부터 짭니다. 진행 상황 분석 후 이 물량은 이 탱크에 붙여야 하고, 이 배합탱크에는 이 재품을 먼저 배치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죠. 컨트롤룸맨들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로 탱크 위치 판넬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건 작업 과정이 몸에 밴 거죠.”

컨트롤룸은 군대로 치자면 작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큰 전략도 세우고 세부 전술도 짜야 하는 등 전략 전술에 능해야 하는 것이 컨트롤맨의 자질이라 하겠다.

관심과 열정으로 쌓은 자부심

1993년 11월, 전주공장에 입사한 최형로 반장은 약 1년 반 동안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건축도로 분산공정을 담당하며 트레이닝 받았다. 1995년 5월, 전주2공장으로 복귀한 후에는 당시 건립 중이던 공장 설비 설치 작업에 참여했다. 도로 탱크 위치나 생산 라인 등 실제 작업할 설비들이 도면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탱크가 있고 분산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 공정 파악을 위함이었다. 덕분에 설비 곳곳에 그의 손길



이 닿아 있다.

1995년 10월, 공장이 완료되어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최 반장의 주 근무지는 컨트롤룸이었다. 그러나 설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오류도 많았다.

“안정화 과정에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법과 경험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됐는데,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면서 직접 노트를 작성하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다들 두꺼운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알죠.” 이같은 노력과 노하우가 쌓이며 3~4년만에 설비 안정화가 이뤄졌다. 이후 2003년부터 전주2공장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주야맞교대를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고, 컨트롤룸 근무자들도 쉴 시간도 없이 초긴장하며 모든 기계를 제어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항상 ‘관심’과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지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만큼 노하우를 쌓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금방 체감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도로 분야가 생소했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탄 자동차에 내가 만든 도로가 채색되어 있고, 시골집에도 우리 도로를 칠해 놓으니 집이 확 달라보이더군요. 도로의 이런 매력에 푹 빠져서 27년을 근무한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서로 위하면서 행복하게 작업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공장 설립부터 함께 해온 컨트롤룸의 베테랑, 최형로 반장은 앞으로도 틈새 없는 결과물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작전사령관으로서의 날카로움을 빛낸다.



안성원곡 물류센터 전경

KCC KCC건설

언택트 시대의 물류 허브를 짓다

안성원곡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다가왔다. 전자상거래는 이를 이끄는 주요 분야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전국 각지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물류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월 준공된 안성원곡 물류센터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언택트 시대의 물류 허브'다.

안성원곡 물류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915 · 916 번지
- 공사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6월(16개월)
- 사업면적 : 90,583㎡
- 연 면 적 : 154,190.57㎡
- 공사내용 : 물류창고 A · B동, 하역장, 사무동(지하 1층~지상 5층)
- 발 주 처 : 컨달스퀘어엘피안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안성에 들어선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2010년에 첫 삽을 뜬 안성원곡 물류단지는 2020년 현재 수도권 남부의 물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도권과 평택항, 남부지방을 두루 잇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형마트 신선물류센터·스포츠웨어 물류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KCC건설이 준공한 안성원곡 물류센터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안성원곡 물류센터는 2019년 2월 공사에 돌입한 뒤 16개월 만인 지난 6월 11일에 준공한 대규모 물류창고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높이가 43.38m에 달한다. 대지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90,583㎡(약 27,000평)와 154,190.57㎡(약 46,000평)로, 그간 KCC건설이 지은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성공적 준공을 이끌어 낸 유창우 소장은 그간 함께한 직원 18명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을 이었다.

“이곳 현장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유통구조의 변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더 많은 물류센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성원곡 물류센터는 우리나라 1위 소셜커머스기업이 사용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대규모 물류센터 완공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속속 세워질 대형 물류센터를 한층 효율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와 직원들도 이러한 의미와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물류센터를 완성했다고 자부합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병열 차장, 이기환 주임, 경찬준 차장, 정우석 사원, 현장소장 유창우 부장, 송명근 과장, 심규환 사원, 한남근 차장, 차아람 주임, 유준선 대리, 윤준영 사원, 김민수 대리, 한승진 대리, 남영석 대리, 서태수 사원

남다른 노력으로 갖춘 내실

대규모 물류창고는 각종 제품을 8m 이상 쌓아 보관한다. 게다가 지게차 수십 대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물건을 올리고 내린다. 이런 상황에서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하면 물건을 제대로 쌓아올릴 수 없고, 여차하면 제품과 지게차가 넘어져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물류창고의 평평한 정도, 즉 평활도는 기본적으로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유창우 소장과 직원들은 이러한 평활도 레벨 'FM2'를 적용해 바닥을 시공함으로써 제품을 높게 쌓거나 지게차가 다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표면마모저항도 레벨도 'AR1'을 적용, 물류창고 운용 시 바닥이 마모되어 생기는 문제 또한 미리 방지했다.

한편 물류창고에는 다양한 제품과 수많은 종이상자가 적재돼 있기에 누수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빗물을 완벽하게 한곳으로 모으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맡는 자재가 홈통(Gutter)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홈통은 5~6m 단위로 잘린 제품을 용접해 길게 만들기엔 용접 품질에 따라 누수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반면 이곳 현장은 철판을 가져와 100m 길이의 홈통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용접 부위를 최소화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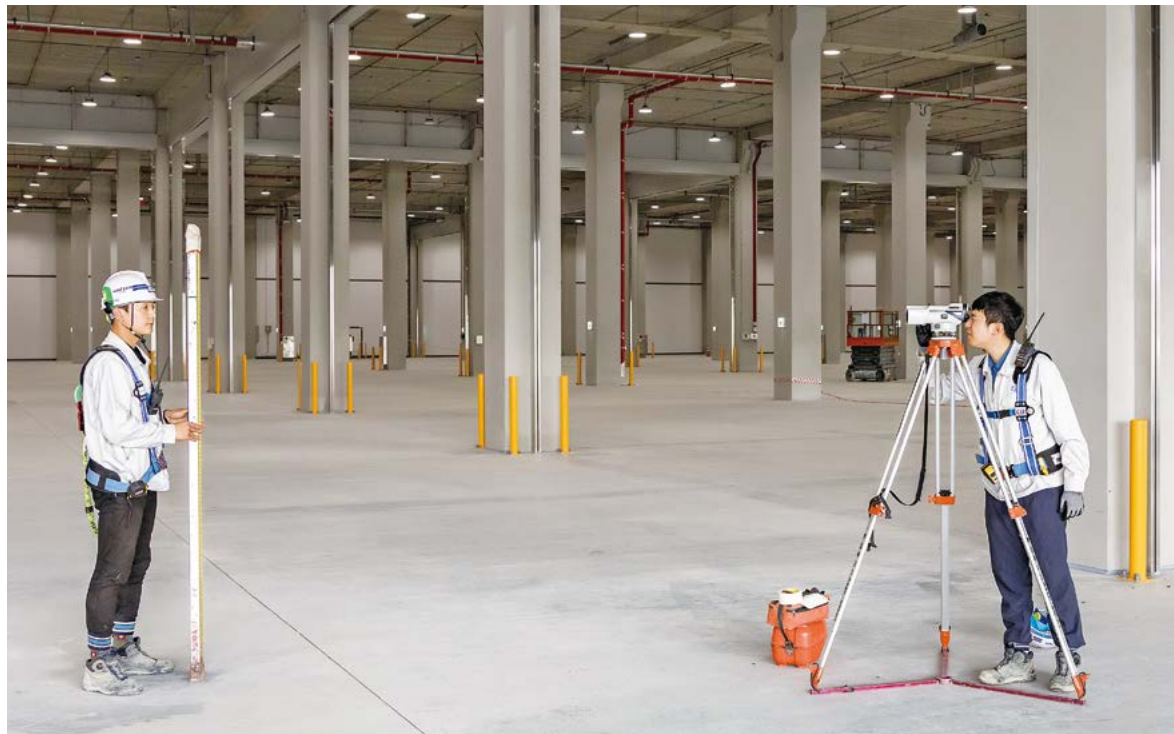
서 문제를 해결했다. 열팽창을 막는 추가 조인트를 설치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안성원곡 물류센터는 누수 위험에서 한결 자유로운 고품질 물류창고로 태어날 수 있었다.

‘안전’과 ‘건강’으로 거둔 유종의 미

올 4월 말,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안성원곡 물류센터는 착공 즈음부터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처음부터 현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현장에 반드시 화재감시요원을 배치해서 갑작스러운 불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 화재사고 직후 관련 부처와 소방서에서 긴급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의 이러한 조치를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3월 감기 증세를 보인 직원에게 드라이브스루 검사와 자가격리를 지시하고 사무



물류창고 바닥의 평활도를 검사하고 있다.

실과 현장을 철저히 소독하기도 했다. 다행히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한시름 놓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다. 이렇듯 직원들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한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원만하게 준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유창우 소장. ‘원만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을 유 소장과 직원들의 땀방울로 인해 안성원곡 물류센터 현장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됐다.



견고하게 마감된 물류창고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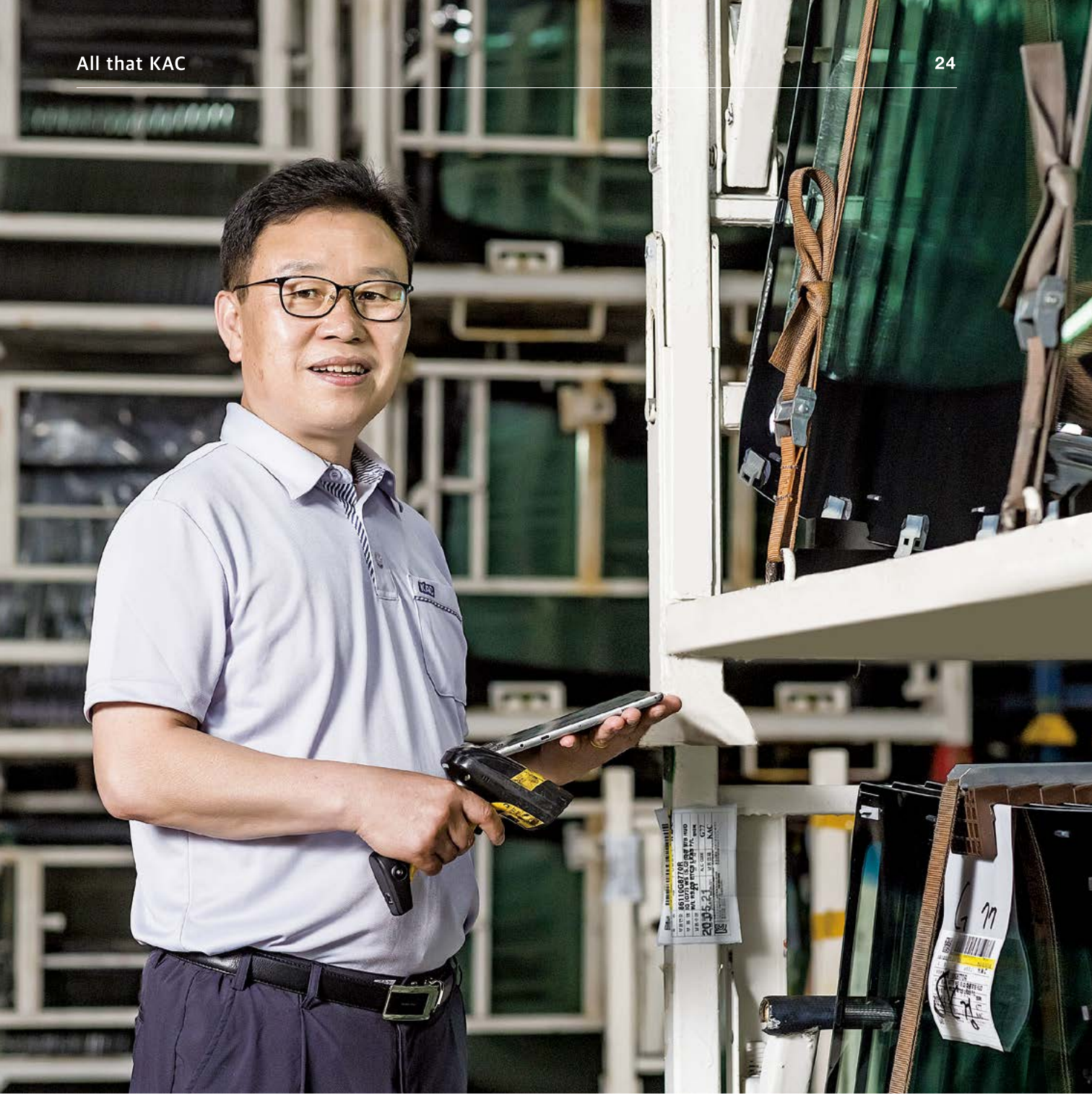
고생한 직원들 모두 ‘모기 없는 여름’ 납시다!



무사히 준공을 맞은 유창우 소장은 처음부터 줄곧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품고 있었다. 물류창고 규모가 컸던 탓에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요소를 관리해야 했고, 공기를 맞추면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끝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에게, 유 소장은 ‘모기 없는 여름’을 선물하려 한다.

그가 고른 제품은 일반적인 모기 퇴치 제품이 아닌, 시계처럼 손목에 차기만 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방출해 물림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유 소장이 “특히 야외활동할 때 효과가 좋다”고 말하자, 여름 레포트를 즐기는 직원들의 환호가 뒤따른다. “이곳에서의 일을 잘 마무리한 만큼, 여러분의 앞날이 한층 더 밝아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 소장의 이야기에 감동 어린 박수를 보내는 직원들.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 본다.





“최적의 물류는 내 손안에!”

KAC 물류과 신종우 주임

원판부터 입고와 출고까지 제품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온 KAC 물류과 신종우 주임.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하고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제품의 시작과 끝이 바로 물류이기에, 원활하게 공정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조율해온 30년 물류 인생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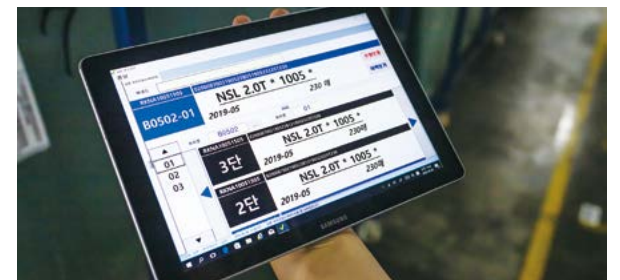
물류 조율을 위한 발걸음, 하루 3만보

“물류는 제품 생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1공장 2공장 제품 원재료 주문부터 재고관리, 생산투입, 완제품 포장 및 출고까지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AC 물류과 신종우 주임은 출근하자마자 완제품 생산 확인 및 출고분 대비 부족량 생산 여부 체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어서 1공장 원판부터 시작해 2공장까지 현장투어를 하며 문제 여부 체크 및 안전 작업 여부, 현장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현장 투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3~4만보가 채워진다. 신종우 주임은 1990년에 KCC 여주공장에 입사, 2001년에 KAC로 전출 후 현재까지 30년간 한결같이 물류 업무를 담당해 온 외길 물류인이다. “여주 공장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죠. 재고 실사도, 출고 보는 것도 다 수기로 작성하고, 영업사원이 필요 물량을 적어서 팩스로 보내면 받아서 차 무게 중량에 맞춰서 출고했거든요. 당시 물류과 직원도 40~50명이었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물류를 6명이 진행하고 있죠.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신 주임은 KAC로 전출 왔을 때도 몇 번씩 시스템을 변경해 가며 작업 효율성이 높은 세팅으로 물류팀을 디자인을 했다. 보다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 변화의 분수령이 된 것은 2003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전산 시스템 도입이었다. “처음에 바코드를 만들어서 작업할 때 오류가 나서 다 취소하고 다시 발행해서 일일이 붙여서 재작업을 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죠. 전산, 생산, 물류 등 모두의 팀워크가 이뤄져야 하므로 정착하는 데까지 4~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출고 오류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비교적 빨리 정착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신 주임은 MES 도입 시 전산 초기화 작업에 동참해 메뉴얼 정상화 작업에 참여했던 일을 30년 물류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기점으로 꼽는다. 또한 2015년에는 자재, 원판, 제품 입고 시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적정 재고가 실시간 검증이 되어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더욱 빈틈없는 재고관리는 물론 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사내 물류의 흐름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물류 관련 중재자로서 그의 역할이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물류의 기본은 책임감과 성실성

물류과의 과제는 늘 물류비 절감 및 적정 재고관리다. 그러한

면에서 신종우 주임은 3년 전에 시행한 창고나 적재 랙(Rack)에 최대량으로 적재하는 작업이 물류비 감소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1단으로 적재하던 작은 유리를 2단 적재로 바꾸고, 모든 랙은 최대한 가득 채워 적재하면서 운반비 절감 등 물류비를 많이 절감하게 됐다. 이는 현장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는 신종우 주임은 물론 모두가 함께 이뤄낸 쾌거였다. “최근 물류과의 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환경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비닐포장을 줄이는 게 최대 목표죠. 지금은 무포장을 하면서 비닐 포장을 90% 이상 줄였는데, 운송차량이 전량 원바디인데다 랙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포장이 없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앞으로도 비닐포장이나 환경오염이 될 요소들을 줄이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30여년간 큰 문제도 안전 사고도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신 주임은 물류 업무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꼽았다. 일단 업무가 시작되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책임감이 몸에 배어있어 퇴근 후에도 업무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 덕분에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은 ‘만물박사’.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 공정이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기여한 물류의 숨은 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 주임은 모든 작업이 매뉴얼화 되어 예전보다는 수월하지만, 작업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후배들에게 스스로와 동료들을 믿고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조언도 전했다. “생산공장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꼭 모두 복구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KAC가 무한경쟁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물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율해 온 신종우 주임. 그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매일 3~4만보를 채우며 물류의 조율사 역할을 성실하게 해낼 것이다.



원판 유리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WMS 시스템

전사품질
분임조편

유리 생산 맛집이 되기 위한 솔루션!

KCC글라스
여주공장
백마분임조

‘2호기 Working End¹⁾(이하 W/E) 공정개선으로 수율 향상’

모든 제조인들의 목표이지만 쉽게 성취할 수 없는 ‘불량률 DOWN, 생산성 UP’. 하지만 KCC글라스 여주공장 백마분임조는 끊임없는 노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당당히 그 목표를 성취했다. 그 성취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전사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무수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건재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KCC글라스 여주공장 백마분임조의 경진대회 출전 과제는 바로 ‘2호기 W/E 공정개선으로 수율 향상’이다. 이들은 유리용융로의 W/E 압력이 불안정해 Canal 온도의 편차가 생겨 박판유리를 생산할 때 만곡²⁾ 및 캠핑 불량³⁾이 생겨 골머리를 썩고 있던 가운데, 정확한 원인 분석과 확실한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완벽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 쉽지 않았던 도전의 과정과 노력의 결실을 카툰으로 각색하여 전한다.



리더
김성우



팀원
신현일



팀원
장동환



팀원
김덕남



팀원
허승호



팀원
박준영



팀원
한호석



팀원
김현구

1) Working End: 용융로(Melter) 후단에 위치하여 용융된 유리물을 성형에 요구되는 온도로 맞춰주는 구조물

2) 만곡: 유리의 인출방향, 폭방향 휨 정도

3) 캠핑 불량: 유리 절단시 유리면이 작은 조각들로 깨지는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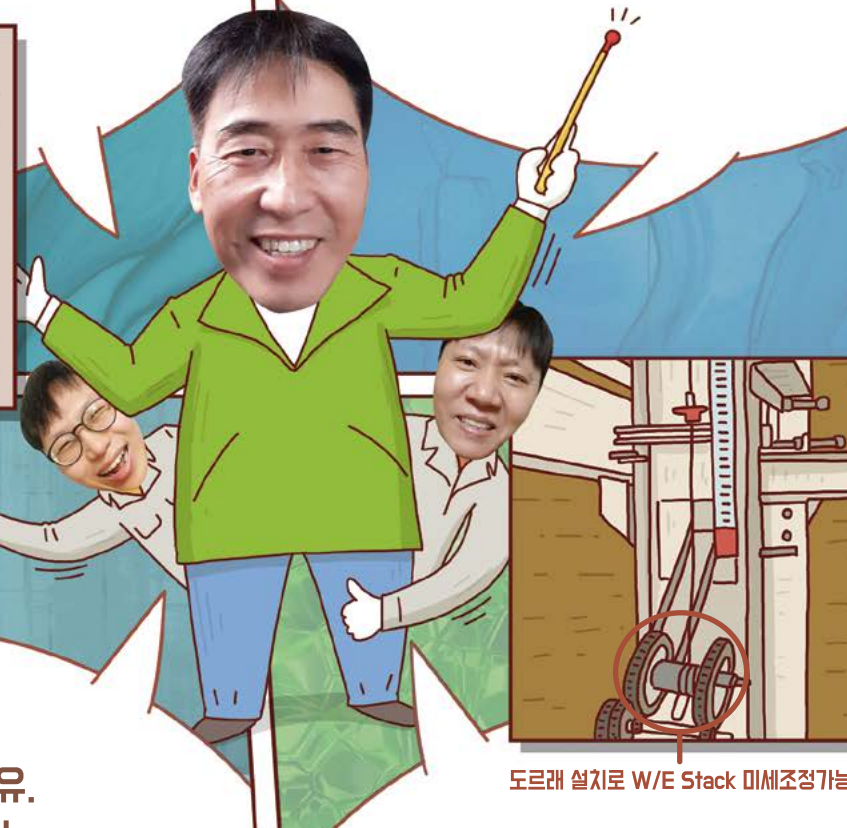
압력측정기에 W/E Burner 가스 연소 시 발생된 수증기가 유입되면 오작동을 일으켜요. 밸브를 항상 열어둬서 물이 자연스럽게 하부 물통으로 이송되도록 해야 하죠.

두 번째론 W/E Burner LNG 압력을 살짝만 상향 조정하세요. LNG 가스 사용량 및 압력을 증가시켜서 W/E 압력을 안정화 시키는 거죠.

CCBF Air Pulsung Time을 조정해주세요. Air Pulsung⁴⁾을 항상 차압 변화폭이 줄어들겠죠?

도르래 설치로 W/E Stack 미세조정가능.

마지막으로 W/E Stack 미세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압력조정시 세라믹보드판 컨트롤이 훨씬 쉬워지겠죠?



4) Air Pulsing: CCBF(집진설비) Filter에 고착된 분진을 Air를 이용하여 제거 해주는 방법

오! 이렇게 하니까 개선 전보다 불량 발생 빈도가 훨씬 낮아졌어!

이럴수가! Canal 온도 편차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두 측정값 모두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 달성했어...

됐어! 이걸로 박판유리 생산 시에 만곡 및 캐핑 불량발생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앞으로도 '유리 생산 맛집'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어.

이 모든 게 여주공장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유리 많이 생산해주실 거죠?

그럼 이제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유리를 생산해보도록 할까?!

골목맛집유리 KCC글라스 여주공장편 끝~~





위기를 영업 기회로!

서울영업소

서울영업소장
김현근 상무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객을 직접 만나 자사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영업 업무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다. 올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영업 환경 속에서도 KCC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영업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특별 연재 칼럼을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김현근 상무와 새출발을 한 '서울영업소'다.

서울영업소는 수도권 영업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전사 유통부문 판매 금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소다. 올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경영방침 중 하나인 영업 중심의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영업 인프라,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선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을 사업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 혁신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WORK DIET

를 실시하여 본연의 영업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른 외근, 현지 퇴근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실질적인 대면 소통은 최소화 하면서, 소통의 확대를 위해 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전 직원 이 함께 하는 대면회의를 대신해, 주요 영업활동은 SFA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SNS를 활용하여 현장 정보나 경쟁사 동향,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관리팀 김혜영 사원, 이석민 사원, 창호영업팀 백성욱 대리, 김효진 사원, 유통도료영업팀 방찬규 사원, 송재훈 사원, 건재가시공영업팀 김요한 사원, 건재유통영업팀 박병규 대리

거래선 이슈 사항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올해 서울영업소 슬로건은 '다이내믹한 영업 DNA 강화'다.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영업 DNA를 강화하는 취지이다. 서울영업소는 건재유통영업팀, 건재가시공영업팀, 창호영업팀, 유통도료영업팀, 프로젝트직판영업팀, 관리팀으로 6개의 팀조직이다. 각 팀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건재유통영업팀은 대리점과 소매점을 고객으로 한 건재를 유통 판매하며, 건재가시공영업팀은 내장공사업체를 고객으로 한 건재를 판매하는 부서이다. 창호영업팀은 특판대리점과 유통대리점에 PVC창호를 판매한다. 유통도료영업팀은 대리점과 소매점을 고객으로 한 도료를 유통 판매하며, 프로젝트 직판영업팀은 도장공사업체를 고객으로 한 도료를 판매하는 부서이다. 관리팀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CS 및 영업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지원을 해주는 부서이다. 각 팀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1)당사 주요거래선 수주강화, 2)병매거래선 MARKET SHARE 증대, 3)신규거래선 조기개설을 통한 매출확대, 4)니치(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상품매출 확대, 5)역동적인 영업을 위한 SNS 활용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성원과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각 팀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건재재무팀 영업팀은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팀원 일부를 IM(Item Manager)으로 지정해 아이템별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업무시간 낭비를 최소화한다. 도료부문 영업팀은 거래선의 이슈사항(하자사례 및 건의사항)이나 영업 활동 시 발생한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 팀원 간 발표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거래선이 관련되어 있어 프로젝트 통합관리,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 업무소통 및 효과적인 거래선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서울영업소는 구성원들의 개인위생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관리팀은 영업소 직원들이 건강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영업팀은 영업인의 최대 목표인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이내믹한 서울영업소를 만들기 위해 땀땀 뭉치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울영업소의 행보를 응원한다.

Episode

발 빠른 대응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영업

건재유통영업팀 이재원 차장입니다. 건자재, 내외장재상품 등 다양한 제품의 영업을 경험했으며, 지금은 유통대리점을 대상으로 내외장재와 보온단열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겪은 한 가지 일이 기억나네요. 때는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서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에 대학교 친구 결혼식이 있어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2~3시쯤에 지방 현장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약 10억 규모로 수주한 곳인데, 모텔 하우스 작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장 소장님은 급한 마음에 전화로 자꾸 재촉을 하고, 워낙 급한 상황이라 지점장님께 보고 후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현장으로 출발했죠. 저녁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모텔에서 쉬게 하고, 바로 현장 소장님과 만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첫째 녀석한테 “아빠, 언제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가족 전부를 데려왔다는 말에 다소 미안했는지 내일 다시 얘기하고 뭐라도 먹으러 가자며 현장 앞 호프집에 가서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저는 차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일어나자마자 현장으로 가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말과 상관없이 빠르게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좋게 봤던 걸까요? 기존에 수주한 것에 더해 내외장재, 단열재 등 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추가로 수주하면서 계약 금액이 10억에서 20억 규모로 상향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영업사원에게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한 답이 안 나와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일을 떠나 감성적인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영업한 KCC 도로로 우리집을 도장했어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빠른 대처로 실적 up!”



일상과 관련된 업무, 긍정의 시너지를 일으키다

프로젝트직판영업팀 이호진 차장입니다. 현재 신축도장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어 KCC인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의 설렘과 동시에 ‘내가 살 아파트의 도로 메이커는 어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KCC 도료를 판매하기 위해 시공사인 D건설사와 H건설사 2곳을 방문했습니다. 도장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당사 주요 거래선이 아닌 경쟁사 주요 거래선이었습니다. 이미 초벌물량도 경쟁사 제품으로 일부 발주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로 도로 금액이 6억인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 업체인 C사를 방문하여 제가 입주하게 된 아파트이니 저를 믿고 KCC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며, KCC 내 H건설사 품질담당 인사를 잘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양수점장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H건설사 1,500세대에 KCC 도료를 납품하게 되었으며, 후속공정인 1,500세대 D건설사 물량까지도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요. 제가 납품한 KCC 건축도료가 도장된 아파트에 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생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업무와 연결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업무를 분리하기 보다는, 삶의 자연스런 일부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성공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업무와 연관되어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인맥을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vent

당신을 칭찬합니다!
창호영업팀

칭찬 파우치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서울영업소 창호영업팀은 차운상 팀장을 중심으로 함상윤 과장, 한형석 과장, 정승호 대리, 김세준 대리, 백성욱 대리, 송혁기 대리, 김효진 사원 총 8명이 근무 중이며, 관내의 창호 대리점에 KCC 창호 원부자재 판매 및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거래선의 창호공사 수주 지원, 개선요청 사항을 끊임없이 청취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및 KCC 창호 매출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창호영업팀 직원들이 업무 중 바쁜 시간을 쪼개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칭찬 파우치’라는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팀원들의 에너지를 보충해줄 맛있는 간식이 담긴 파우치에 서로에 대한 칭찬 및 격려 메시지를 넣어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쪽지를 쓰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라며 하나둘 펜을 드는 창호영업 팀원들. 작은 카드에 서로에 대한 진심



을 꼭꼭 눌러 담는다. 조용히 메시지를 적는 시간이 지나고, 각자 작성한 카드를 파우치에 조심스럽게 넣어 서로에게 전달했다. 칭찬이 담긴 파우치를 받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차운상 팀장에게 칭찬 파우치를 받은 김효진 사원은 “바쁜 업무로 팀원들과 업무 이외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백성욱 대리에게 메시지를 받은 한형석 과장은 “백 대리도 어여쁜 아들 잘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라고 화답했다. 또한 함상윤 과장에게 칭찬 메시지를 받은 김세준 대리는 “진정한 ‘믿을맨’이 되어 과장님 칭찬에 보답하겠습니다”라며 팀원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달콤한 간식과 칭찬 메시지로 뜻깊은 시간을 보낸 창호영업팀. 이날 받은 긍정의 에너지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창호영업팀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다

터키법인 영업1부

한계선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는 '도전'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 있다. 바로 터키법인(KCT)의 영업1부다.



성장을 이끄는 동력, 도전

영업1부는 해외영업 20년의 베테랑 부사장인 이재길 부장과 Ms. Ebru 과장의 리더십 아래, 영업지원 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Ms. Esra Pars, 선박/PCM을 담당하는 Ms. Derya Erenturk, 분체/자동차 담당 Ms. Ege Ozaydin, 분체/선박 담당 Mr. Dem Bag, 분체 담당 Mr. Mustafa Porsuk 대리까지 총 7명의 직원이 땀 흘려 발로 뛰며 터키법인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 영업1부는 자동차 도료, PCM 도료, 분체 도료, 선박 도료 등 다양한 제품의 영업을 맡고 있다. 주로 라인을 운영하는 거래선을 대상으로 판촉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7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영업에 나선 덕에 주요 4개 유형의 지난해 매출은 KCT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지난해를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올리기까지, 영업1부는 무수한 도전을 시도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서 왔다.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를 상대로 한 영업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영업1부 팀원들은 해외 영업을 할 때 고객과 언어, 문화, 시간대가 달라 힘들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튀니지 소재 Isuzu 트럭을 CKD”로 제작하는 업체를 2년여에 걸쳐 판촉했습니다. 튀니지는 불어와 아랍어를 활용해 소통을 하고, 시간대도 터키와 두 시간이나 차이가 나지요. 업무 진행의 관습도 달라 속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구글 번역기를



KCC 터키 법인 전경

이용해 소통하고, KCC 자동차 도료의 기술력을 알리는 노력 끝에 드디어 2020년 3월에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튀니지의 첫 KCC 자동차 도료 공급 거래선을 발굴해 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업1부는 튀니지 거래선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의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지난 2년 간 이어온 판촉활동을 유지하며 자리를 굳힐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CIS, 유럽 등에도 자동차, PCM, 분체 유형 거래선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위기 앞에 더욱 강해지는 우리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위기 상태에 빠졌다. 터키도 코로나 확진자가 19만 명(6월 말 기준)을 넘고, 도시 간 이동 봉쇄 등으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1부는 튀니지 거래선을 개척하면서 탄력을 받아 더 큰 성장을 노리고 있던 상황이라 그 아쉬움은 더욱 크다. 하지만 영업1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며 숨을 고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거래선의 가동 변동 상황 및 특이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신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요. 또 혹시 터키 내 경쟁사의 가동 감소 등의 변수로 생길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1부는 위기 앞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뚝뚝 뚫리며 목표를 더 굳건히 세우고 있다. 올해의 목표는 최근 집중 판촉하고 있는 일반 분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터키 선주사 직판 체제를 구축해 TOP 30 선주사에 대한 선박도료 판매 확대를 이루는 것이다. 언제나 가슴 속에 도전정신을 품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터키법인 영업1팀. 이들의 도전정신이 계속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내일의 빛나는 그 모습을 기대해본다.

1) CKD(Complete Knock Down):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영업을 위해 제작된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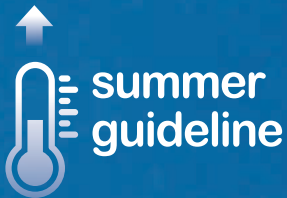


역대급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여름 건강 백서’

2020년 올여름, 최악의 더위가 예보됐다. 7월부터 장마전선이 물러나면, 이제 더위로 악명이 높았던 1994년, 2018년을 넘어서는 ‘역대급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여름은 온열질환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한 여름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할지, 여름철 건강 꿀팁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인사팀
이상은 간호사



① 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더위가 성큼 찾아왔다. 타들어가는 더위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예방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에어컨 사용 OK~! 환기가 가장 중요!

앞서 중국의 한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기침·재채기)을 할 때 바이러스가 섞일 위험이 있는 작은 물방울이 더 멀리 확산돼 감염자가 나와 에어컨 활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선 이러한 에어컨 활용을 통한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할 때 함께 창문을 열고 환기’ 하라고 조언한다. 에어컨 바람의 환류는 바이러스를 실내 곳곳에 퍼뜨리게 만드는데, 환기를 하면 바이러스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실외로 배출된다.

▶ 마스크는 KF80으로 충분! 면마스크 활용도 Good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는 여름에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병 의심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은 숨쉬기 힘든 KF94, KF99 마스크보다 KF80이나 덴탈마스크, 정전기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착용하면 충분하다. 특히 임신부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는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곤란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해수욕장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해수욕장들이 하나둘씩 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피서를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백사장에서 파라솔은 2m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물놀이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샤워시설 이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자제 등 생활방역에 힘써야 한다. 또한 바다여행(www.seantour.kr) 홈페이지에서 해수욕장 혼잡 정보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는지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그 정도를 신호등 색깔(초록: 원할, 노랑: 혼잡 우려, 빨강: 혼잡)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② 냉방병



냉방시설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지나친 냉방 탓에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냉방병은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와 차이가 심하여 체내의 조절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여 나타난다. 또한 습도 저하도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두통, 신경통, 요통,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이 특징이다.

▶ 냉방병 예방수칙

①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 ② 가능한 실내외 기온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③ 에어컨의 냉기를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냉방에 들어갈 때는 땀을 잘 닦아 준다.
- ④ 냉방을 계속할 경우 1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시켜준다.
- 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 ⑥ 냉방장치 내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퍼져 폐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냉방 장치를 소독하고 냉각수를 갈아준다.

③ 온열질환



일사병, 열사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의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체온 상승, 심장박동 증가, 어지러움과 두통, 탈수 증상을 동반한다.

▶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법

- ① 고온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가장 더운 오후 12~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 ②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고, 공기가 잘 통하고 편안한 옷을 입도록 한다.
 - ③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의식 확인→옷 단추와 벨트를 풀어주기→수분 보충→열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로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는다.
- Tip.** 시원한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머리,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면 열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

④ 식중독



식중독은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7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다양한 원인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여름철엔 식재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법

- ① 식품 조리 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 ②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고 가능하면 물도 끓여 마신다.
- ③ 조리 시 야채와 과일을 먼저 씻고, 육류나 어패류를 나중에 손질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④ 육류 및 어패류용 도마, 채소용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 ⑤ 장을 볼 때,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과일이나 채소→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육류와 어패류→냉동식품 순으로 구입하며 장을 보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⑦ 먹을 만큼만 소량 조리,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OUT! 깔끔한 욕실 만드는 '셀프 욕실 실란트'

장마철엔 유독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스멀스멀 피어 오른다. 벽지, 장판 등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일으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욕실이다. 지긋지긋한 욕실 곰팡이를 해결하고 싶다면, '셀프 욕실 실란트 시공'에 주목하자.



곰팡이 천적! 실란트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온도는 20~30℃, 습도는 60%일 때 곰팡이가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유지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욕실은 곰팡이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다. 곰팡이는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건강에도 적신호를 켤 수 있다. 곰팡이는 코 막힘, 눈 가려움, 호흡곤란, 피부자극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 혹은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폐 속에 곰팡이 감염을 유발하는 등 우리 몸 이곳저곳에서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시킨다.

가장 좋은 것은 곰팡이가 자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100% 깔끔하게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되도록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 없애기 위해 물티슈나 물걸레를 이용해 닦는 건 곰팡이 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비벼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제거 방법이 바로 실란트 시공이다. 실란트(sealant)는 우수한 접착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어 자재를 고정시켜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효과를 지닌 물질이다. 특히 욕실 및 주방에 사용되는 KCC의 바이오 실란트(SL825)는 항균 성능이 뛰어나 곰팡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욕실 곰팡이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란트를 준비하자. 구매를 완료했다면 곰팡이를 무찌를 준비는 거의 다 됐다. 이제 셀프 실란트 시공 방법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배워보자.



쉽게 따라하는 실란트 시공

재료: KCC 바이오 실란트 SL825, 실리콘 건, 실리콘 제거기, 마스킹 테이프, 마감용 헤라



1. 실리콘 제거기를 이용해 곰팡이가 핀 기존의 실란트를 제거한다.



2. 실리콘 건에 실란트를 넣는다.
(실리콘 건의 고정쇠를 눌러 총의 밀대를 최대한 당기고, 실란트를 머리 쪽부터 넣어준다. 방아쇠를 계속 당겨주면 고정 완료!)



3. 실란트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인트 양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4. 곰팡이가 핀 실란트를 제거한 자리에 새로운 실란트를 채워준다.



5. 실리콘 헤라로 실란트가 발린 부분을 속 훑어 평평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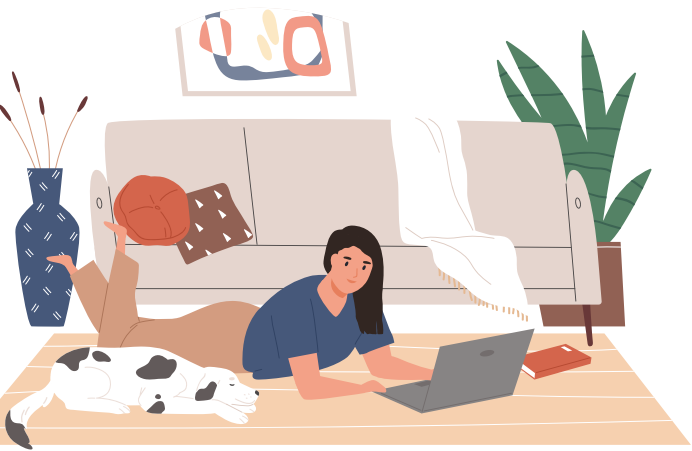
6.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 뒤 가장자리의 군더더기는 실리콘이 마른 후 커터칼로 제거한다.



집에서 즐기는 랜선 휴가의 모든 것

올해 휴가는 해외는 물론 국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외부로
나가야만 즐길 수 있었던 전시, 공연,
여행을 모두 집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현 시대의
새로운 휴가법을 소개한다.

Home Life Style



1) 루브르 박물관
2)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전시



VR로 만나는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은 VR(가상현실) 투어 프로그램을 열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관람객들을 위해 박물관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거장들의 다양한 회화와 조각까지, 시대별 주요 소장품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VR 기술을 적용해 마치 루브르에 직접 방문한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 〈모나리자〉의 경우 ‘줌 기능’을 통해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다. 늘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루브르 박물관을 여유 있게 관람하고 싶다면 주목하자.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 속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

영국의 대표 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앤디 워홀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픈 5일 만에 전시를 접어야 했다. 이후 테이트 모던은 성명을 통해 ‘갤러리는 폐쇄되지만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앤디 워홀 전시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비디오 투어로 소개된 이 전시에는 20세기 후반부터 1987년까지 제작된 앤디 워홀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마릴린 먼로’, ‘캠벨 수프 캔’, ‘코카콜라’ 등 대표적인 팝아트는 물론 앤디 워홀의 정체성을 담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3) 태양의 서커스
4) 국립국악원

공연



환상적인 곡예와 예술의 하모니, 태양의 서커스

세계 최고의 아트 서커스로 알려진 ‘태양의 서커스’는 직원의 95%를 일시 해고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가격리로 지친 이들을 위해 공연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매주 한 편씩, 약 1시간 분량의 공연 편집 영상이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공개된 콘텐츠는 인류의 발명을 모티브로 한 ‘KURIOS’와 수중발레, 다이빙 등 물에서 이뤄지는 곡예를 보여주는 ‘O’, 강렬한 라틴 음악을 배경으로 멕시코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연 ‘LUZIA’를 편집한 영상이다. 곡예와 예술이 어우러진 아트 서커스를 방구석 1열에서 관람해보자.

랜선으로 이해하는 국악 공연,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100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예술기관이다. 최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전통공연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 무대를 마련했다. ‘Gugak in(人)’이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기악과 성악(민요, 판소리, 정가) 분야의 민간 전통공연 예술단체 10팀을 초청해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공개하며,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국악 외 장르와 협업한 공연도 있어 전통 음악이 낯선 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5) 스위스 관광청
6) 두바이 관광청

여행



방 안에서 즐기는 스위스의 365일, 스위스 관광청

스위스 관광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랜선 여행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e need Switzerland’라는 문구와 함께 1월부터 12월까지의 스위스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된다. 홈페이지 하단에서 풍경을 보고 싶은 달을 클릭하면 각 달마다 4개의 장소를 촬영한 영상이 차례로 이어진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모습이 재생되는데,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영상의 시점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 직접 간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영상에 표시되는 관광지들을 클릭하면 관련 사진은 물론 다양한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랜선 관광에 특화된 웹사이트 운영,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관광청에서는 2014년부터 랜선 여행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웹사이트 ‘두바이 360’을 선보이고 있다. 두바이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360도 뷰와 줌 기능을 이용해 세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바이 곳곳의 랜드마크는 물론 투숙객과 레스토랑을 예약한 방문객만 출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내부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동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알세르칼 에비뉴의 온라인 전시도 감상할 수 있는데, 관광청을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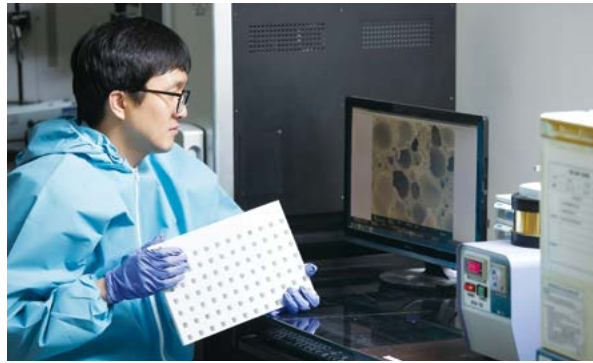


고요한 쾌적함을 만드는 흡음 그리고 차음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바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휴식을 취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고요함’을 꼽는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고요함을 선물해 주는 존재가 바로 ‘흡음’과 ‘차음’이다.

완벽한 방음을 위한 솔루션 흡음 그리고 차음

누구나 한 번쯤은 창문을 넘어, 또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에 괜스레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작든 크든 바깥에서 흘러 들어온 소리는 집안을 가득 울리기 십상. 이렇듯 소리가 침투하는 까닭은 건물의 내외벽이 흡음과 차음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으로, 소리를 막기 위해선 매질의 역할을 감소시키거나, 파동의 반사를 줄여야만 한다. 흡음(吸音, absorption of sound)은 음파가 발생했을 때 재료, 구조 또는 물체가 그 소리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소리를 흡수하여 매질의 진동을 줄여 소리가 퍼지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또 일부는 열로 변환돼 소리 감쇠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소재는 흡음 성질이 있지만, 높은 효율의 소재는 많지 않다. 흔히 목욕탕이나 강당에서 들을 수 있는 울림음은 내벽이 콘크리트나 벽돌, 타일, 금속판 등 흡음이 잘되지 않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보다 고요한 환경을 위해선 흡음재를 활용하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흡음재로는 소리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판진동형(석고보드·압축목판), 공기의 점성이나 점유의 진동



흡음 석고보드 '사운드윈(Soundwin)'의 성능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소 풍경

손실로 흡음 효과를 내는 다공질 흡음재(유리섬유·발포재) 등이 있는데, 소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자재 사용이 요구된다. 또 다른 방음의 개념인 차음(遮音, Sound isolation)은 외부나 내부의 특정 음원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압을 감소시켜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음을 위해서 콘크리트, ALS판 등 단단하고 무거운 재료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을 통과하면서 소리의 파동 반사가 줄어들어 효율적이다. 단위 면적당 무게를 늘리면 차음성이 증가하는데, 보통의 일중벽에서 30dB의 소리를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1m² 당 5kg, 40dB은 1m² 당 70kg의 무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효율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차음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일중벽이 아닌 일중벽을 겹쳐 놓은 다중 벽을 사용한다. 벽 소재 자체의 차음 효과는 물론, 벽과 벽 사이의 공기에 의해 소리의 에너지가 소모돼 더 효율적으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

‘소음은 이제 그만!’ 우리 삶 속 방음이 중요한 이유

언뜻 보면 흡음과 차음은 고속도로 옆 방음벽이나 악기 연주실에서만 활용될 것 같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질은 사실 오히려 우리네 주거 문화와 더 큰 연관이 있다.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최근엔 벽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생활 소음이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주거 공간이 흡음과 차음 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8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 안에서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68.5%에 달했고, 스트레스 점수는 79.8점에 달했다.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소음 분쟁 전화 상담 건수 또한 2만4053건이었다. 이처럼 나날이 심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흡음, 차음 성질

을 가진 건축자재인테리어 제품들이다. 정부에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바닥충격을 차단 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로 건축되고 있는 공동 주거 공간에 흡음재를 끼운 천장재나, 발포고무로 만든 바닥재, 화학물질 컴파운드 소재 등 흡음·차음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어 우리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등 방음재를 만드는 KCC

KCC는 생활 소음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흡음, 차음 성질을 활용한 바닥재, 석고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KCC글라스의 바닥재 ‘숲’은 두께감 있는 쿠션으로 우수한 차음성을 발휘해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랐다. 특히 ‘숲 소리 휴(休)’는 소음저감량 테스트 결과 일반 콘크리트 대비 33%의 경량충격을 감소 효과가 있을 정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뛰어난 흡음 성능을 갖춘 석고보드 사운드윈(Soundwin)은 공연장 및 대형 극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41~45dB 감소 효과가 있어 지하철 내부 수준의 소음 크기를 도서관 수준으로 줄여주는 발코니 이중창 242, 250도 있다.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KCC의 노력은 제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공법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15년 개발에 성공한 건설신기술 제759호는 차음 성능을 5dB 개선하면서 두께는 39mm나 감소시켜 시공비와 시간까지 절약시키며 건설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중앙연구소 건축환경연구소의 음향시험동(KOLAS)에서 이루어지는 벽·창호, 각종 천장재·천장재 시스템의 차음 성능 측정 및 평가, 흡음재의 흡음 성능 평가 덕분이다. 음향시험동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더 훌륭한 기능의 건축자재들이 꾸준히 탄생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처럼 KCC는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건축자재와 시공기술 개발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노력들이 가져올 미래의 우리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고요한 휴식을 즐기게 될지 기대감을 품게 된다.



흡음
(吸音, Sound Absorption)

차음
(遮音, Sound Insulation)

간결하고 명확한 이슈 전달을 위한 공문 & 공지 영어 표현

글. 케빈 경(도서 <비즈니스 영어회화 표현사전> 저자)

기업의 중요한 상황이나 소식을 공유하는 수단 중 하나는 공문/공지다. 특정한 내용을 구성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업 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공문/공지 영어 표현을 알아본다.

공문/공지 글쓰기 Tip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게 관건

예전에는 공문(memo, memorandum)을 출력해서 일일이 배포했지만, 요즘은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아예 이메일 본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내용이 길면 관련된 문단을 모아 더욱 더 세밀한 섹션(section)으로 나누고 앞에 섹션 제목(heading)을 쓴다.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포함한다.



업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공지 샘플

Memo	말레이시아 국제 친환경 건축 박람회
(A) TO: All KCC's Foreign Branches (B) FROM: Joa Na, Director (C) CC: K. C. Won (D) DATE: July 4, 2020 (E) SUBJECT: Futurebuild SEA 2020 in Malaysia	받는 사람: KCC 해외법인 전 직원 보내는 사람: 디렉터 Joa Na 참조: K. C. Won 날짜: 2020년 7월 4일 제목: 말레이시아 국제 친환경 건축 박람회
(F)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Futurebuild (Eco-build) Southeast Asia 2020 will take place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October 20 to 22.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Futurebuild (Eco-build) Southeast Asia 2020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려고 이 공문을 보냅니다.
(G) The expo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grasp the latest trends in eco-friendly construction-related technologies and promote the KCC brand.	이번 박람회는 최신의 건축 관련 친환경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KCC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H) The Covid-19 virus has been difficult for all of us, but we have to strengthen our sales capacity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m hopeful that the expo will help with your sales efforts.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올해 하반기는 영업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박람회가 여러분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 Let us all pull together and rise above this global pandemic.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세계적 유행병을 극복합시다. 질문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영어 공문/공지 기본 포맷

흔히 TO, FROM, CC, DATE, SUBJECT은 모두 대문자로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 이름이나 직책, 제목 내용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A) TO 받는 사람

공문을 받을 사람들을 명시한다. 회사 내 모든 직원에게 보내는 경우 All Staff and Employees 또는 All Employees라고 쓰면 된다.

(B) FROM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쓰고 뒤에 직책을 넣는다.

(C) CC 참조

수신자 외에 공문의 내용을 공유해야 할 참조자들을 명시한다. 참조자가 없으면 CC 줄은 생략해도 된다.

(D) DATE 날짜

날짜를 적을 때 월 단위는 숫자 대신 알파벳으로 적는다. 미국식으로는 주로 Month Day, Year(July 4, 2020)로, 영국식으로는 Day Month Year(4 July 2020)로 쓴다.

(E) SUBJECT 제목

이메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목은 수신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목을 신문의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뚜렷하고 간결하게 쓴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F) 핵심

공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첫 문장은 I'm writing to...(~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또는 This is to...(~하고자 합니다)를 자주 사용한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싶다면 The purpose of this memo is to...(~이 이 공문의 목표입니다)를 사용하면 된다.

(G) 세부사항 또는 근거

그 다음에는 첫 단락을 지탱하는 세부사항이나 근거, 적절한 맥락이나 배경 설명 등을 넣는다.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H) 요청 또는 향후 계획

이 부분에서는 수신자에게 당부 요청을 하거나 희망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또는 향후 계획을 알리기도 한다.

(I) 긍정적인 마무리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되도록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문/공지 시 유용한 패턴들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을 알리고자 이 공문을 보냅니다.

ex)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the parking policy has changed.
주차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 알리고자 이 공문을 보냅니다.

...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 The seminar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North American market.
이번 세미나는 북미 시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We have to...

(우리는) ~을 해야 합니다.

ex) We have to increase our revenues.
우리는 당사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I'm hopeful that...

(저는) ~을 기대합니다.

ex) I'm hopeful that the client will agree.
클라이언트가 동의하기를 기대합니다.

Please let me know if you...

...한다면 알려주세요.

ex)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모든 물질의 필수 원소 아연

청백색을 띠는 아연은 광택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금속이다. 철, 알루미늄, 구리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금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원소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연에 대해 알아본다.

<주기율표>는 KCC의 주요 원소들의 이야기를 매호 시리즈로 알아보는 칼럼입니다.

	
주요원소 시리즈	원자 번호: 30
30 Zn Zinc 65.38	기호: Zn
	녹는점: 420°C
	끓는점: 907°C
	발견된 해: 1746년

우수한 화학적 특성으로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는 아연

아연을 의미하는 영어 zinc는 독일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책에 'zincum' 또는 'zinken'으로 기록된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다. 바늘 모양의 금속 아연 결정을 묘사하기 위해 '포크나 톱니의 뾰족한 모양'을 뜻하는 독일어 'zinken'에서 파생되거나, 주석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주석을 의미하는 독일어 'zinn'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연은 24번째로 지각에 많이 포함된 금속 원소로 철보다 밀도가 낮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해 수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기 중에서 물,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염기성 탄산아연 보호막이 생기는데, 이때 내부가 물이나 공기와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도금 및 합금 등의 핵심 원소로 꼽힌다.

아연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곳곳에서 아연이 포함된 고대 금속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루마니아의 한 유적지에서 나온 아연이 들어있는 조각상은 선사시대 유물로 추정되며, 기원전 5세기 경에 사용된 장신구도 발견됐다. 이후 로마에는 기원전 30년경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 제조법이 알려졌으며, 로마인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무기와 주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12세기부



터 16세기까지는 인도에서 아연을 제련했고, 17~18세기 초 동양에서 유럽으로 정기적인 수출이 이뤄졌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연을 정제하는 법을 발견한다. 1746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그라프가 밀폐된 용기에 숯 혼합물, 탄산 아연과 규산 아연이 혼합된 칼라민 광물을 가열해 세계 최초로 순수한 아연 금속을 얻은 것. 이후 1752년에는 이 정제법을 이용해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1800년, 이탈리아 과학자 알레산드로 볼타가 구리와 아연판을 차례로 쌓고, 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종이를 끼워 만든 전지를 발명하면서 아연의 유용성이 더욱 확대됐다.

소량의 아연, 우리 몸을 지키다

아연은 인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원소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에는 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성인 기준 약 2g의 아연이 뇌와 뼈, 간, 근육, 신장, 전립선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아연은 성장 호르몬, 인슐린, 성 호르몬 등의 효소 작용을 돕고, 피부를 포함한 신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산화 효소의 필수 요소다. 또한 DNA와 RNA의 대사와 신호 전달 및 면역 기능에도 관여할 만큼 중요한 요소다.

아연이 부족할 경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고, 만성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게다가 성 기능이 떨어지고 성장이 지연되는데, 그 영향으로 어린이는 왜소증, 태아는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위험성이 커진다. 아연이 부족한 식물 역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할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 성인 기준 1일 아연 섭취 권장량은 남성이 8~10mg, 여성은 7~8mg이다. 육류나 갑각류, 생굴, 해초류, 콩, 유제품 등 여러 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섭취할 필요가 있다.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철, 항생물질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구역질이나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아연의 역할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아연의 약 55%가 도금에 사용되고 있다. 금속제 지붕과 난간, 가로등, 자동차 차체, 현수교 등 부식되기 쉬운 철이나 강철로 이뤄진 구조물의 표면에 도금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아연은 철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이 포함된 음식물



부품에 사용된 아연

철에 아연을 도금할 경우, 아연이 완전히 부식되기 전까지 철이 녹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아연이 굵혀 철이 노출된 경우에도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아연 생산량 중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곳은 합금이다. 아연과 구리를 합금한 황동(놋쇠)이 있으며, 여러 아연 합금이 다이캐스팅 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이캐스팅 합금 중 대표적인 것은 자막(Zamak)이다. 아연에 소량의 구리와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넣은 합금으로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수도꼭지, 재관 이음쇠, 베어링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 예로 아연과 알루미늄 자막은 합금의 녹는점과 점도가 낮기 때문에 복잡한 모양의 금속 부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아연의 또 다른 활용 분야는 건전지다. 최초의 전지였던 볼타 전지부터 수은 전지, 알칼리 전지, 연료 전지 등 다양한 건전지의 음극(－극)을 만드는 데 아연이 쓰인다. 4차 산업혁명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전지의 시초인 아연의 활용이 기대된다.

1) 다이캐스팅 합금(diecasting alloy): 금속 주형에 재료를 가압해 넣고 식혀서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합금



KCC, 아파트 재도장 종합 안내서 ‘RE-ACT’ 발간

KCC가 최근 신축 아파트의 외벽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 아파트 재도장을 위한 특별한 색채 디자인을 소개하는 재도장 종합 안내서 ‘RE-ACT’(Repainting Apartment Color Trend)’를 발간했다. 통상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아파트 재도장은 아파트의 수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관이 수려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비와 바람에 의해 색이 변하는 것을 우려해 도색이 쉬운 무채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페인트의 내후성과 물성이 강화되면서 특색 있는 컬러 디자인으로 재도장을 진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RE-ACT를 통해 소개하는 아파트 재도장 색채 디자인은 Cozy Soft(부드럽고 화사한 컬러 디자인), Pure Soft(부드럽고 깨끗한 컬러 디자인), Stylish Layered(세련된 유사색 컬러 디자인), Stylish Vivid(시선을 끄는 생생한 컬러 디자인), Elegant Grayish(중후한 그레이톤 컬러 디자인), Urban Grayish(도시적인 그레이톤 컬러 디자인)이다. RE-ACT에 각 테마별 디자인 사례들을 실제 아파트에 적용했을 때의 모습으로 구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CC는 다년간 축적해온 디자인 노하우로 국내 대표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매뉴얼 컬러를 분석, 개발해 수 많은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건설사들과의 협업으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재도장 시장에서도 각 현장에 적합한 우수한 색채 디자인을 꾸준히 제안할 예정이다.

홍보광고팀 안상욱 대리

KCC recently published RE-ACT (Repainting Apartment Color Trend), a comprehensive repainting guide that analyzes the exterior design trends for newly built apartments and, based on that, introduces unique color designs for repainting existing apartments. The repainting of apartments, which in general is carried out every five years, is closely related to the apartments' lifespans, and in recent years, interest in apartment complexes with a beautiful appearan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of people choosing easy-to-apply achromatic colors out of fear of discoloration resulting from rain and wind. However, in recent years, with the weatherabil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paint having improved, more and more places are repainted with unique color designs. The color designs for apartment repainting that are introduced via RE-ACT are: Cozy Soft (a soft and bright color design), Pure Soft (a soft and clean color design), Stylish Layered (a stylish, similar-hue color design), Stylish Vivid (a vivid color design that catches the eye), Elegant Grayish (a stately gray tone color design) and Urban Grayish (an urban gray tone color design). RE-ACT features images of actual apartments to which the aforementioned diversely themed color designs have been applied, so you can easily get an idea of how a certain color design would look on actual apartments. Based on its years of design know-how, KCC has been analyzing the colors shown in the manuals for branded apartments from South Korea's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and has also been coming up with its own colors, which have been applied to numerous sites. Known for being quick to respond to change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other construction companies, KCC will continuously propose outstanding color designs suitable for each site in the repainting market as well.



KCC, 하남시 ‘쿨루프 하남’ 시범 사업 성공적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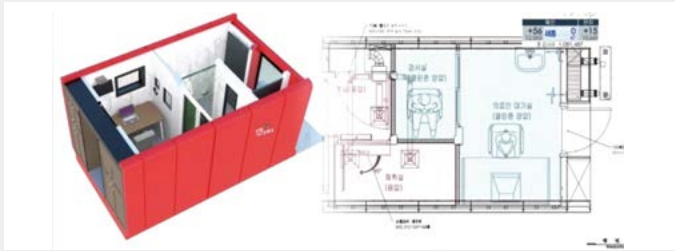
KCC가 하남시가 주관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쿨루프 하남’ 3호 사업을 완료했다. KCC와 현대건설이 함께 참여한 ‘쿨루프 (Cool Roof) 하남’은 하남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노후 건축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이다.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면 여름철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약 4~5℃ 내릴 수 있어 30~40%의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쿨루프 하남은 6월 기준 총 3곳의 경로당에 도색 작업을 실시했다. 6월에 진행된 쿨루프 하남의 세 번째 대상지는 풍산동 소재의 경로당으로 총 3일에 걸쳐 작업이 이뤄졌다. 물청소와 바닥면 정리부터 프라이머 도포, 차열 페인트 도색 작업 순으로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CC는 올해 12월 말까지 차열 페인트 시공과 관련된 자재와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 ‘쿨루프 하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업 관계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보광고팀 김학범 과장

KCC글라스,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위해 친환경 바닥재 기부

KCC글라스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나섰다. KCC글라스는 지난 6월 24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오수 KCC글라스 총무·구매 이사, 홍정기 환경부 차관,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참여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에 대해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컨설팅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KCC글라스는 이번 사업에 친환경 바닥재 제품을 기부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KCC글라스의 PVC바닥재 ‘쉼’ 시리즈는 환경표지인증, HB마크 최우수 등급 등 국내 주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인 만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CC글라스는 이번 환경부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외에도 KBS의 대표 사회공헌 TV 프로그램인 ‘동행’에도 바닥재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월 방영된 ‘은호의 입학하는 날’ 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8살 은호의 사연이 소개됐으며, KCC글라스는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닥재를 지원한 바 있다.

KCC글라스 박훈 과장



KCC글라스, 이동형 비대면 선별진료소 물품 조달 참여

KCC글라스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된 '이동형 비대면 선별 진료소(ASCC)'에 흡씨씨 욕실상품들을 적용하였다. ASCC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광산구에 2020년 6월 22일 도입되어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였다. 냉난방을 자유롭게 하여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과 의심환자 공간을 분리해 비대면 검체 채취를 진행함으로써 의료진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동형 진료소의 특성상 마감재 선정을 고심하던 중 항균성 필름을 사용하고,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하기 위해 두께가 상향되며, 히든 몰딩으로 마감 부위가 경쟁사 대비 매끄러운 장점을 가진 2020년 흡씨씨 욕실 신규 품목인 '이지패널'과 '이지플로어'가 최종 해결방안이 되었다. 이지패널과 이지플로어는 ASCC의 개구부를 제외한 모든 천장, 벽체, 바닥에 적용되며, 진료소 내부에서 손을 씻기 위한 위생도기 및 수전도 흡씨씨 제품으로 설치되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ASCC는 창의적인 기술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KCC글라스가 참여하는 것은 국난 극복의 작은 일원으로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국민적인 관심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재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CC글라스 김건태 차장



KCC건설, 안마항 정비공사 수주

KCC건설은 지난 5월 28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안마항 정비공사를 수주했다. 총 공사비는 304억으로 당사분은 277억 원(90%)이며, 덕흥건설(주)(10%)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안마항은 1986년 어업, 어장의 개발, 어선 대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94년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본 시설이 완공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퇴적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국가어항 기능이 약화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25년까지 남방파제 보강, 물양장 신설, 신규 물양장을 잇는 연결도로 등을 신설하는 정비공사를 통해 수산업 기반 확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약화된 국가어항의 기능 회복을 기대되고 있다.

KCC건설 공공사업부 김현균 사원



KCC건설,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KCC건설은 '케이피로지스틱 피에프브이'에서 발주한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지하1층~지상10층 1개동, 총 연면적 129,922평의 국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 신축사업으로 총 도급공사비는 3,107억원이다. 당 물류센터는 남청라IC와 인접하여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며, 인천공항 및 인천 북항 등과 인접한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서부 수도권 물류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기존 다수의 물류센터 수주와 더불어 금번 국내 최대 규모인 원창동 물류센터를 수주함에 따라 물류센터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CC건설 개발1부 홍문기 사원

이번 호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가벼운 퀴즈를 통해 당신의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아래 QR코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1 다음 중 방수재 도료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피도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분이나 습기가 침입, 투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 ② 전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수재 도료의 대표 브랜드는 스포탄이다.
 - ③ 우레탄방수재는 신울과 도막강도가 뛰어나다.
 - ④ 우레아방수재는 1분 이내에 경화되는 초속경화 타입이다.
 - ⑤ 차열도료는 태양의 복사열을 소량만 흡수하고 튕겨내 건축물 내외부 온도상승을 억제한다.
 - 2 다음 중 안성원곡 물류센터 현장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6월 준공된 대규모 물류창고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공사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6개월이다.
 - ③ 물류창고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평활도 레벨 'FM2'를 적용해 시공했다.
 - ④ 누수방지를 위해 100m 길이의 흙통을 직접 제작해 용접 부위를 최소화했다.
 - ⑤ 현장 안전을 위해 화재감시요원을 배치해 화재사고를 예방했다.

 KCC 유튜브 Quiz!

KCC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콘텐츠를 보고 답해주세요!

- 3 6월 업로드된 'KCC클라쓰'에서는 도로 셀프 시공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반려견 집 꾸미기로 **슌으로훈앤멀티멜** 도장 방법을 알려준다. **슌으로훈앤멀티멜** 작업 전에 도장하는 이 제품은 수성페인트와 접착력을 높여주고 색상이 더 선명하게 나오도록 도와준다. 이 제품의 이름은?
- ()
- 4 '갑자기 KCC 실험실'에서 소개된 이 페인트를 옥상에 바르면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함으로써 지붕의 열 축적을 줄일 수 있어 실내 온도를 최대 5℃까지 내려 주기 때문에 냉방비를 줄일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일반인도 붓, 롤러, 스프레이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페인트의 이름은?
- ()

지나 호 정답	
1. ㉔	
2. ㉔	
3. 숲으로 올인원	
4. 실리론 에멀전	
지나 호 퀴즈 정답자	
대전영업소 관리과	임추현 사원
KCC글라스 수도권관리	이재영 사원
성남영업소 간재영업팀	김길호 과장
본사 총무팀	김승희 사원
중앙연구소 특허_기술정보팀	나지영 대리
KCC건설 총무부	이상수 대리
중앙연구소 기능연구팀	김현수 부장
수원영업소 관리팀	임보라 사원
KAC 총무팀	배정직 사원
성남영업소 남양주출장소	민경준 사원

국내 사업장 주재기자

보산 안상옥 대리 | 중앙연구소 구본민 사원 | 공장 가맹 김인규 대리 | 김천 하태웅 사원 | 대죽 송미려 대리 | 문막 장효식 대리 | 세종 홍승길 사원 | 아산 강해리 사원 | 안성 강민준 대리 | 여주 한정훈 대리 | 여천 박재현 과장 | 영월 박규진 대리 | 울산 박우진 대리 | 전주 1 권대균 과장 | 전주2강장 서승우 사원 | 전주3 강익민 사원 | 영남소 경기북부 김희은 사원 | 광주 박형서 사원 | 당진 최혜진 사원 | 대구 이민서 사원 | 대전 김상하 대리 | 목포 조영관 과장 | 부산 김형준 사원 | 성남 전성배 대리 | 수원 박재진 대리 | 순천 최희경 사원 | 울산 정민 대리 | 원주 장은비 사원 | 인천 양대선 대리 | 전주 김태경 대리 | 천안 오영균 대리 | 청주 원혜실 사원 | 포항 조재훈 사원 | 계열사 KCC글라스 박훈 과장 | KCC건설 김준석 대리 | KAC 이순규 대리 | 금강저차 유두환 사원

해외 사업장 주재기자

KCC BASILDON (영국) 김형욱 부장 | KCT (터키) Suna Ozgen | KCK (중국 곤산공장) Zhou Na | KCK (중국 상해영업소) Jia Li Fen | KCB (중국 북경공장) Li Juan | KCB (중국 북경영업소) Tian Juan | KCG (중국 광둥공장) Qiu hengkun | KCG (중국 광주영업소) 한은실 | KCV (베트남) Duong Kim Ngoc Son | KCM (말레이시아) Kenneth Lee | KCS (싱가포르) 김재성 과장 | KCI (인도) A.Saravanan | KCID (인도네시아) 송승호 차장 | KCE Europe (독일) 김형욱 부장 | KCC UAE (아랍에미리트) 윤성환 차장 | KCC JAPAN (일본) 라윤미



7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QR코드 주소
<http://kcc.zins.co.kr/poll.html>
메일 주소
sabo@kccworld.co.kr



◀
KCC
Youtube



KCC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ccstory>

KCC Blog
blog.kccworld.co.kr/

다 함께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코너 <함께하는 걸음>. 12달 동안 제시되는 캠페인 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일곱 번째 주제는 '관계를 풀어주는 대화법'입니다.

관계를 풀어주는 대화법

“쿠션 언어로
부드럽게
말해요!”



혹시 ‘쿠션 언어’, 들어보셨나요? 쿠션 언어는 공감이나 요청, 의뢰, 반론, 거절 등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할 때 문장 앞에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용진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말랑말랑하고 편한 쿠션처럼 완충 작용을 하는 언어를 의미하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거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쿠션 언어를 사용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때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등의 표현을, 거절할 때는 ‘유감스럽지만’, ‘공교롭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쿠션처럼 말랑말랑한 언어로 사내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 가는 KCC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 창문은
숲을 닮았어요

초록 식물들이 숨쉬며
주변 공기를 맑게 정화하듯
실내공기를 알아서 깨끗하게 바꿔주니까

미세먼지 가득한 날에도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집 공기는 매일매일 안심입니다

숨쉬는 창호로
깨끗하게 숨쉬다

KCC 창호

